

지자체별 다양성 갖춘 도시농업 사업 확산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2022.2.22.

대전시 일자리경제국 농생명정책과
2022.2.16.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2022.2.23.



부산시의 2021년 도시농업 관련 행사 모습
출처: 부산시,(2022).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도시농업」이 이끈다! 2월 23일 보도자료.

인천시,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운영' 진행

인천시가 학교 및 공공텃밭 활용을 통한 도시농업 확산과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2022년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운영'사업의 참여대상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운영 사업은 도시농업관리사를 텃밭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이들을 텃밭 현장으로 파견해 학생들과 공공텃밭을 분양받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방법, 병해충 관리, 친환경 농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시기별로 도시민들이 직접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10개소이며, 학교 텃밭을 운영하는 인천 관내 초·중등학교와 공공텃밭을 운영하고 텃밭관리 교육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 도시텃밭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

대전시는 도심 속 유휴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속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도시텃밭인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1세대당 1구획씩 신청할 수 있다. 분양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분양대상자는 20㎡ 규모의 텃밭을 3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 2022년 도시농업 육성계획 추진

부산시는 '그린스마트 도시'의 비전 실현을 위해 올해도 도시농업 육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학생·농업인 등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도시농업 수요 맞춤형 교육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16개 과정 총 138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도시농업 시범사업(7개)에 2억 5,700만 원을 투입해 학교교육형 텃밭모델화, 치유농업 프로그램, 그린스쿨 오피스 조성,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등 새로운 시범모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4월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제18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를 열어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그린스마트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기틀을 마련한다.